

# 退溪 家書에 나타난 話法에 대한 一考\*

- 孫子 安道에게 부친 서찰을 중심으로 -

정시열\*\*

## Ⅰ 차례 Ⅰ

- I. 머리말
- II. 自歎에 내포된 貫徹의 의지
- III. 辛辣한 어조와 客觀的 거리
- IV. 全知的 판단과 理性的 환기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퇴계 이황이 손자 안도에게 보낸 서찰 가운데 현전하는 125통에 나타난 화법에 대한 연구이다. 맏손자에게 보내는 것이었던 만큼 서찰 곳곳에서 묻어나는 조부의 애정 어린 어조는 15년의 세월 속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전하는 내용에 따라 진술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것을 화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서찰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서도 비교적 비중이 큰, 세 가지 사안인 제수된 관직의 사직, 손자의 학업에 대한 면려, 처세나 처신에 관한 언급 등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 서찰에 나타난 퇴계의 화법은 상대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둔 표현적 진솔함이라는 말로 요약이 가능하다. 이러한 그의 화법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 본 연구는 2012년도 (재)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 심층연구 사업의 자료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전언을 위해 일정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각각의 세부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퇴계의 자탄 속에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퇴계는 외형상으로는 자기 처지에 대해 탄식하는 자탄의 화법으로 일관했지만 문맥상에 나타난 의미를 보면 상소나 차자로 허락받기 어려운 경우 직접 임금을 뵈고서라도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집념 어린 면모를 보였다.

제3장에서는 퇴계의 신랄한 어조와 그로 인해 손자와의 사이에 형성된 객관적 거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퇴계는 사정을 두지 않는 신랄한 화법을 통해 손자와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학업을 독려하는 데 있어 祖孫 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감정적 매몰을 경계했다.

제4장에서는 전지적 입장에서 내리는 퇴계의 판단과 이로 인한 이성적 환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퇴계는 전지적 위치에서 손자의 처신에 대해 충고하고 조언했다. 그리고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도 보여줌으로써 젊은 손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처세하기를 촉구했다.

학자로서의 퇴계는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 유학의 巨擘이요,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巨儒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적 권위만을 생각한다면 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요원한 일이 된다. 퇴계의 인간적 면모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의 내밀한 생각과 일상사가 기록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장르적 성격상 사적인 기록의 비중이 높은 서찰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자료라 할 수 있다.

#### 주제어

퇴계, 이황, 안도, 조부, 손자, 가서, 서찰, 화법

## I. 머리말

본고는 退溪 李滉(1501-1570)이 손자 安道(1541-1584)<sup>1)</sup>에게 보낸

1) 안도는 퇴계가 처음으로 마련한 집인 온혜의 지산와사에서 출생하여 5세 때부터

家書 즉 서찰에 나타난 화법에 대한 연구이다. 가서란 주로 집안의 子姪을 비롯해서 일가 친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뜻한다.<sup>2)</sup> 퇴계의 가서 가운데 안도에게 보낸 것은 현재 125통이 전하며<sup>3)</sup>, 기간 상으로는 퇴계의 나이 55세이던 1555년부터 그가 易箒한 1570년까지 만 15년이다. 말손자에게 보내는 가서였던 만큼 서찰 곳곳에서 묻어나는 조부의 애정 어린 어조는 10여 년의 세월 속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전하는 내용에 따라 진술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것을 화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가서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서도 비교적 비중이 큰 세 가지 사안 즉, 제수된 관직의 사직, 손자의 학업에 대한 면려, 처세나 처신에 관한 언급 등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sup>4)</sup>

---

퇴계에게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함. 20세 때 안동부사 권소의 딸과 결혼했으며, 그 후로는 처가를 따라 서울, 함경도 덕원, 경북 상주 등 여러 곳에서 생활함. 성균관에서 과거 준비를 하기도 하고, 청량산에서 글을 읽기도 함. 26세 때 대과 1차 시험인 초시에 합격했으며, 34세에 개성 목청진 참봉으로 첫 벼슬을 함. 30세에 조부 퇴계의 상을 당하고, 43세에 부친의 상을 당함. 執喪 중이던 44세에 아우 순도와 함께 운명함. 이상의 내용은 『(先祖遺墨) 家書』(한국국학진흥원, 2011)의 해제에 소개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2) 김종석, 「家書를 통해 본 퇴계선생의 자녀교육관」, 『퇴계학논집』 제1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07, 237쪽.
- 3) 본고에 수록된 '안도에게 보낸 퇴계 가서'의 번역은 譯註書인 『안도에게 보낸다』(이황 지음, 정석태 옮김, 들녘, 2005)에 실린 내용을 대부분 따르되 일부 수정했다. 그리고 서찰이 작성된 연월일 역시 이 책의 기록을 따랐다. 여러 문헌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아서 역주하고, 그 작성 시기를 밝히는 고된 작업을 감당한 정석태 박사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다.
- 4)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퇴계가 손자 안도에게 보낸 서찰'에 대한 연구는 자제교육이나 가정교육의 관점에서 논의된 것이 대부분이다. 김종석의 「家書를 통해 본 퇴계선생의 자녀교육관」(『퇴계학논집』 제1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07), 이인철의 「退溪의 子女教育論 -寄安道孫을 中心으로-」(『교육철학』 제33집, 한국교육철학회, 2007), 김미영의 「사람됨을 가르친 퇴계의 자녀교육」(『퇴계학논집』 제11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박수경의 「퇴계의 가서에 나타난 가정교육의 범주와 지향」(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12)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 가서에 나타난 퇴계의 가족 관계라든지 가족 간의 인간적 모습에 대한 논의로는 이장우의 「家書를 통해 본 退溪의 家族

일반적으로 화법이라 하면 말이나 글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퇴계는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난 갖가지 신변잡사와 집안에서 발생한 자질구레한 사건들을 안도에게 상세히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적인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입장과 대책을 밝힘으로써 손자가 조부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점을 통해 판단하건대 퇴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감 없이 노출시키는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표현의 진실성과는 별개로 퇴계의 傳言은 증언부언 없이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로 전달되었기에 그의 가서는 감정상의 어수선향이나 내용상의 난삽함 대신 정돈된 느낌을 준다.

퇴계에게는 정실 소생의 두 아들이 있었으나 48세 무렵에 차남 채를 먼저 떠나보냈다. 그래서 그가 안도에게 서찰을 보냈을 시기에는 장남 준과 소실 소생의 아들 적, 그리고 준의 소생인 세 손자와 두 손녀가 있었는데, 그중 맏손자 안도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각별했음은 안도에게 보낸 서찰 가운데 현전하는 것이 125통이라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장남 준에게 보낸 현전 서찰 510여 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후손들에 대한 서찰이 극소수임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수량적 측면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서찰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퇴계는 서울에 있는 안도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온갖 일들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이끌었으며, 집안의 대소사를 알고 있도록 하여 훗날 가문의 계승자가 되는 데 손색이 없게끔 했다. 또한 그는 어리고 미숙한 손자를 위해 인생의 조언자이자 학문적 선배로서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이러한 훈

---

관계 및 人間的인 면모, 『퇴계학논집』 제11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가 있다.

런과 연마의 과정 속에서 퇴계는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와 소통하는 조부의 위상<sup>5)</sup>을 확고히 세워 나갔던 것으로 파악된다.

안도의 나이를 기준으로 서찰이 작성된 시기를 보면, 15-20세까지는 6통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21-30세에 집중되어 있다. 당시 안도는 20대의 청년으로서 학문을 업으로 삼아 세상을 배워나가는 중이었기에 사회 경험이 日淺했으며, 생각이나 일 처리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서투른 면이 많았다. 하지만 퇴계는 이러한 점을 이유로 들어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서찰에 나타난 퇴계의 화법은 상대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둔 표현적 진솔함이라는 말로 요약이 가능하다. 이러한 그의 화법은 앞서 언급한 관직의 사직, 학업에 대한 면려, 처세나 처신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전언을 위해 일정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그 각각의 세부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自歎에 내포된 貫徹의 의지

퇴계는 1534년 34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宦路에 들어섰으나 43세에 身病을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 후 考終할 때까지 관직의 제수와 사직이 반복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잠시 내외직을 맡기도 했다. 하사받은 관직을 그만둬도 좋다는 임금의 윤허를 얻기란 수월치 않은 일이었으므로 出處의 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실랑이는 퇴계를

5) 전통 사회에서 祖孫間의 관계 양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면 김미영의 「祖孫 관계의 전통과 隔代 교육」(『실천민속학연구』 제16호, 실천민속학회, 2010)을 참고하면 된다.

종종 고뇌에 빠뜨리곤 했다. 그가 안도에게 보낸 가서 가운데 관직에서 물러나는 일을 언급한 것이 30여 통이나 된다는 점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대변해 준다.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는 퇴계의 목소리가 자탄의 어조를 띠는 것은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신하된 입장에서 왕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주장을 고수한다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조정과의 줄다리기에 수세적 입장에 놓여 있었던 퇴계는 임금의 반응과 자신의 사퇴가 불러올 파장에 늘 전전긍긍해야만 했다. 퇴계의 화법에 탄식이 어려 있는 것은 비록 손자에게 보내는 서찰이었지만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고 지지해 주기를 갈구한 때문으로 파악된다. 서찰상에서 사퇴를 논할 때 감지되는 우울한 정조를 통해서도 그의 乞退가 예의상 언급한,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난처한 입장을 호소하는 간곡함과 절실함은 자탄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노심초사하는 퇴계의 모습에서 자제들을 독려할 때의 엄격함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사직을 고집함으로써 타인의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했지만 서찰에서는 단 한 번도 본인의 주장을 거두고자 하는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 실상 이러한 지점에서 퇴계의 남다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외면적으로는 자기 처지에 대해 탄식하는 자탄의 화법으로 일관했지만 문맥상에 나타난 의미를 보면 상소나 차자로 허락받기 어렵다면 직접 임금을 뵈고서라도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집념 어린 면모의 소유자였다.

다음 예문은 1567년 8월, 27세의 안도에게 보낸 서찰의 일부이다. 당시 퇴계는 예조판서에서 해직되자 명종의 장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의 이러한 처신에 대해 조정에서는 의

견이 분분했다. 이 서찰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퇴계의 심정을 잘 보여준다.

지금 듣자 하니 제공들이 모두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는구나. 두렵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님의 상에 슬퍼하는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한 측면에만 의거해서 말한 것이다. 만약 신하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의당 떠나야지 하루도 외람되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도리로 말한다면, 슬퍼하는 마음이 도리어 이 도리로 인해 그 의미를 잃게 되니, 어떻게 급히 떠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하물며 나는 수십 년 동안 병으로 거취를 결정해 왔는데, 이제 만약 서울을 떠나지 못한 채 겨울을 지내다가 혹 추위 때문에 병이라도 걸려서 남모르는 가운데 갑자기 죽게 되면, 일생 동안 곤궁함을 견디며 사퇴한 뜻이 그 어디에 남아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도리를 알지 못하고 말들을 하니 한탄스럽구나. 그때는 생명이 위태로워서 부득불 임시방편으로 스스로 죽지 않을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sup>6)</sup>

언제나 사직을 염두에 두었던 퇴계는 하루라도 빨리 귀향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국상이 끝나지 않은 터라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보다 한 달여 전인 7월에 작성된 서찰에서는 임금의 장례를 마쳐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추위 때문에 여정이 힘들어질 것을 걱정하기도 했다. 퇴계는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며 갈등하다가 마침내 8월 초에 예조판서를 사직하는 글을 올렸으며, 곧이어 해직이 되자 바로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로 인해 조정에서는 그의 처신을 비판하는

6) 『陶山全書』三, 591~592쪽, 「寄安道孫」, 今聞諸公皆以爲非. 惶愧何勝. 然此但據爲山陵 盡情一邊而言也. 若以人臣不職當去, 不可一日冒處之義言之, 情反爲此義所奪, 安得而不急去耶. 況余數十年來, 以病爲去就. 今若不去過冬, 或遇寒疾, 溘然於黯闇之中, 則一生忍窮辭退之意安在哉. 世人皆不思此義而云云, 可歎. 當彼時, 軀命岌危, 不得不用權自拯, 爲不死之計.

중론이 일었던 것이다.

퇴계는 손자에게 보내는 서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울음을 터트릴 듯한 음성으로 자신의 입장에 대해 하소연했다. 그는 병이 위중했기에 객사라도 하게 되면 수십 년간 향리에 머무르며 지조를 지켜온 그간의 보람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선택을 했노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두 달 후인 10월의 서찰에서도 그는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으며, 그것이 온전치 못한 처사였음을 인정했지만 탄식 섞인 그의 고백 속에는 당시로서는 병이 중했기에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는 해명이 또한 담겨 있었다. 이처럼 퇴계는 관직에서 물러나는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는 와중에도 자조 섞인 탄식을 연발할 뿐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한결같이 지니고 있었다.

다음 예문은 1567년 12월, 27세의 안도에게 보낸 서찰의 일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상이 끝나기도 전에 귀향한 일로 인해 몇 달 간 조정 중론의 공격 대상이 된 퇴계는 이해 겨울이 되자 완전히 지쳐버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에 대한 고단함이 묻어난다.

나는 서울에서 돌아온 뒤로 비방이 자자해서 마음이 편치 않지만 나처럼 늙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서는 이로 인해 영원히 버려지더라도 다행이 아니라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 (중략) ... 나는 평소에 기대승이 세속의 관습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에 내가 어리석고 병들어서 벼슬을 할 수 없는 실상을 임금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이고, 또 이와 함께 나아가고 물러나며 사양하고 받는 문제에 있어서 벼슬을 사직하고 물러나서 살려고 하는 나의 청을 임금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아뢰어서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를 구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기대했던 기대승이 제 스스로 나를 밀어 백 길이나 되는 깊은 우물 속에 빠뜨리는구나. 평소의 내 처신이 얼마나 벗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였



는지 잘 알 수 있겠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고 보니, 스스로 부끄럽고 또 가슴 아플 뿐이다. 그러나 어찌하겠느냐.<sup>7)</sup>

사직 후 바로 낙향한 것이 시빋거리가 되어 조정 중신들의 구설에 오르게 되자 퇴계의 심사는 고향에 내려와서도 편치 못했다. 차라리 버려지는 것이 지금보다 낫겠다는 탄식처럼 그는 하루하루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심정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생략된 중략 부분의 내용을 보면, 날씨가 풀리면 다시 상경하라는 왕명이 그에게 하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손자 안도는 임금님께서 할아버지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대단하다며 기뻐했지만 퇴계는 자신에게 더해지는 과중한 기대에 심적 부담이 커져만 갔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의 서찰을 보면 날씨가 따뜻해지자 퇴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을 청하는 상소문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저번처럼 무턱대고 올라가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는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한다.

위에 제시된 예문을 보면 퇴계는 원치 않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기대승이 자신의 뜻을 잘 헤아려서 관직이 하사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기대승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하자 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거듭 한탄했다. 하지만 이 무렵의 서찰들에서 드러나듯이 퇴계는 이러한 자탄의 목소리를 내는 중에도 즐기차게 상소를 올리는 등 본인의 뜻대로 일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7) 『陶山全書』三, 216쪽, 「答安道孫」, 余歸後毀謗藉藉, 雖爲未安, 在我老病愚拙之分, 庶得因此永棄, 未必非幸. … (中略) … 余平昔, 每望奇明彥能不拘世習, 直陳吾愚病不可用之實, 并及進退辭受之間, 不可不從其請之意, 以解我倒懸也. 今乃手自推入于百尺之井, 極知吾素行不足取信於朋友. 以至此極, 徒自愧痛而已. 奈何奈何.

다음 예문은 1568년 1월, 28세의 안도에게 보낸 서찰의 일부이다. 앞서 살펴본 서찰에서는 기대승에게 실망한 퇴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서찰에서는 그와 오랜 세월 교제했던 허엽의 처사를 꽤 씩씩 여기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두 통의 서찰로 판단하건대 당시 퇴계는 자신의 본의를 주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던 듯하다.

나와 허공은 서로 사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나는 지난 가을부터 비난의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있었다. 그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허공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이렇게 천거하는 말로 나를 크게 치켜세워, 병들어 거의 다 죽게 된 내가 다시 낭패를 당해 장차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만드는구나. 이려고도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옛사람의 말씀에, 늙을 때까지 사귀어도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낯설다고 하였다. 허공이 일찍이 나에게 자신이 새로 지은 서재에 걸 글을 지어 달라고 하였지만,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오래도록 짓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만약 글을 짓게 된다면, 의당 이렇게 나를 잘못 천거한 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지어야 할 것 같다. 이래도 되겠느냐.<sup>8)</sup>

퇴계는 몇 달 전 명종의 상을 마치기도 전에 귀향한 문제로 인해 비난을 받을 당시 허엽도 자신을 비판하는 데 참여했음을 짐작으로 알고 있었다. 이제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데 허엽이 다시 자신을 천거했음을 알고는 노여움을 감추지 못했다. 퇴계 본인은 사직을 윤희 받고자 비난을 무릅쓴 채 온갖 애를 쓰고 있는데, 허엽이 자

8) 『陶山全書』三, 217쪽, 「與安道孫」, 滉與許公, 相與周旋, 亦云久矣, 若可以相知矣. 況去秋以來, 滉方在謗海波瀾中. 非唯他人, 許公亦未必不爲譙詆. 乃反忽然無端出此薦言, 大爲揄揚, 致令病蹟垂死微蹤, 復見顛沛, 將入罪罟. 其可謂相知乎. 古人有白頭如新之語, 許公嘗令滉作其新齋記, 鄭重而久未果. 如或作之, 當以此語爲主意, 乃可乎.

신의 그러한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자 그는 서운함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퇴계는 지난 세월의 사궤은 간 데 없고, 마치 새로운 사람을 만난 듯 낯설다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향리에 은거하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이 자꾸만 왜곡되는 상황을 접하며 그는 점차 지쳐갔다. 손자에게 보내는 서찰에서라도 탄식을 늘어놓지 않으면 마음을 주체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듯하다.

퇴계는 일찍이 허엽이 자신에게 서재에 붙일 글을 부탁했음을 기억하고는 이번에 천거를 잘못된 일을 가지고 그 글을 써야겠노라며 화를 삭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예문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죽림칠현의 일원이었던 嵇康과 山濤의 고사를 예로 들며,<sup>9)</sup> 친구로부터 절교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등 허엽과의 절교까지도 고려했다. 자신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이어지자, 그의 서찰은 울분에 찬 탄식으로 가득해졌다.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퇴계의 자탄 속에는 좌절과 절망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집념이 내포되어 있다.

다음 예문은 1568년 2월, 28세의 안도에게 보낸 서찰의 일부이다. 퇴계는 자신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한 후,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상과 절연한 채 숨어 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나는 평생에 무슨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기에 하늘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이와 같이 천만고에 없었던 일을 겪으면서 이리저리 밀려서 옮겨

9) 혜강과 산도는 중국 풀나라 竹林七賢의 일원이었다. 관직에 있던 산도가 혜강을 자신의 후임으로 추천하자 혜강은 그에게 절교를 청하는 「與巨源絕交書」를 보냈다.

다니다가 이처럼 극한 지경에 이르렀구나. 사직을 윤택하지 않는다는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뒤로, 내 작은 힘과 정성으로는 진심을 모두 밝혀 간절히 청한다고 해도 결코 임금님을 감동시킬 수 없음을 알고 나니, 마치 천 길이나 되는 깊은 구렁에 떨어진 듯 두려움에 떨 나머지 죽으려고 해도 길이 없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멀리 달아나는 한 가지 일뿐인 듯하다마는 너희들이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다시 몹시 절박한 일이 생기면 부득불 이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때는 너희들의 일도 돌아볼 겨를이 없을 것이다. 어찌하면 좋으냐.<sup>10)</sup>

퇴계는 자신의 진정이 통하지 않음을 알고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당시 그의 나이가 68세였으니 서거하기 불과 2년 전이다. 실제 그에게는 출사보다는 요양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조정에서는 상경을 미루는 퇴계를 비방하는 목소리가 높았기에 그는 이 점에 대해 늘 우려했다. 고금을 막론하고 겸손히 물러나 있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고려치 않고 관직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법이었기에 퇴계의 언행은 남들로부터 이해 받기 어려웠다. 조정의 중신들 중에는 퇴계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의 형편이 어떤지를 생각지 않은 채 그가 벼슬을 거부하는 고상한 선비가 되려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처럼 해명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계는 완전한 은거를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서울에 있는 자제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

10) 『(先祖遺墨) 家書』 卷8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陶山全書』四, 298쪽, 「答安道孫」, 但吾不知平生作何等不義事, 乃不爲天所祐, 身見如此千萬古所無之事, 輾轉推遷, 以至此極耶. 自奉不允批旨, 乃知螻蟻微愴, 雖披肝瀝血, 苦懇哀切, 無以上格于天, 若墜千仞之壑, 震越之餘, 求死無路. 只有逃遁一事, 似若可爲, 而以汝等在都下, 故姑未果. 若更有太迫之事, 恐不得不出於此. 汝等事, 亦不暇計也. 柰何柰何.

이러한 압박과 비방을 견뎌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方外의 선비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사실 이 같은 은둔은 그가 평소에 추구했던 뜻과는 상반된 것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손자를 향해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퇴계의 음성에는 비록 자탄이 어려 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다음 예문 역시 위의 서찰과 마찬가지로 1568년 2월, 안도에게 보낸 것이다. 당시 퇴계는 자신의 사직과 귀향 문제가 야기한 파장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 속에서 손자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렸다.

나는 밤낮으로 사직이 윤택되기를 바라지만, 윤택되기는커녕 도리어 벼슬을 높여 주신다고 하니 진실로 이와 같다면, 어찌 조정에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있겠느냐. 반드시 큰 죄를 받은 뒤에야 끝날 것이니 어찌하면 좋으냐. 이 때문에 밤낮으로 속을 태워서 날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 같구나. 만약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임금님의 명령이 그치지 않아서 내 병이 더욱 심해진다면, 너희 부자도 서울에 있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몹시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일이 극한 상황에 이르면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을 생각이다. 아무쪼록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미리 알고 있거라.<sup>11)</sup>

퇴계의 서찰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가 우울감이다. 이보다 한 달 뒤인 3월에 작성된 서찰을 보면, “나는 지난해부터 내내 역경 속에 처해

11) 『(先祖遺墨) 家書』 卷8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陶山全書』四, 298쪽, 「寄安道孫」, 「吾日夜望有恩許, 而非徒未蒙許命, 反有加憂者云. 苟如是, 豈有可進之日. 必得大罪而後已, 奈何奈何. 以此日夜憂煎, 日覺心證發動. 若朝命不止, 而吾病轉劇, 則汝等似亦難在於京, 事勢有大不便者. 然事到極處, 萬事不暇計也. 須勿以語人, 心中預知之.

있게 되니, 비록 애써 시름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마음을 굳게 갖기 어려워 때때로 울적해짐을 면할 수 없다.”<sup>12)</sup>는 고백이 나온다. 퇴계는 자신에게 생긴 마음의 병을 다스리고자 한가한 가운데서 평온히 조절하며 지내기를 원했으나, 조정에서는 관직을 올려서 부르는 등 그를 조용히 두지 않았다.

이처럼 관직의 제수와 사직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비방을 받는 등 마음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경하라는 어명이 내렸으니 당시 퇴계가 처한 상황은 실로 진퇴양난이었다고 할 만하다. 불과 한 해 전에 겪은 환난이 재차 재현될 수 있음을 예견한 퇴계의 어조에서는 짙은 탄식과 절망감이 묻어난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는 마지막 남은 선택의 길이 있기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무너지지는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퇴계는 2년여의 수명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에 운명을 맡기기보다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명철보신하겠다는 강한 집념을 보였다.

### Ⅲ. 辛辣한 어조와 客觀的 거리

손자 안도에게 학업을 권면하는 내용의 가서는 40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나타난 퇴계의 목소리는 감정적으로 절제되어 있다. 『논어』「季氏」篇에 등장하는 陳亢과 伯魚의 문답<sup>13)</sup>에서 군자가 그 아들을 멀리했음을

12) 『陶山全書』四, 299쪽, 「答安道孫」, 自去年以來, 長在逆境之中, 雖強加排遣, 定力不固, 不免有時而鬱悒心地.

13) 진향은 스승 공자가 아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었을 것이라고 여기고는 백어에게 특이한 들음이 있는가를 물었다. 그러나 돌아온 백어의 대답은 시와 예를 배우라는 것으로 공자가 평소 강조하던 바와 다름이 없었기에 백어는 군자가 자기

알게 되었다는 백어의 감탄처럼 퇴계 역시 손자 안도를 대하는 데 있어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퇴계는 도학에 종사하는 학자로서 자신의 문하에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던 만큼 그에게도 아들과 손자가 탁월한 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인간적 욕심이 있었겠으나 이러한 바람을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자손들에게 대학자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학업에 성실한 사람이 될 것을 당부했다.

출사의 문제에 있어서 퇴계는 제자들에게 벼슬길에 오를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으나 능력과 여건이 되고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관직에 진출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여겼기에 오히려 은거를 고집하는 獨善其身과 玩世不恭의 태도를 경계했다. 그는 과거 시험을 중시했으며, 자제들의 공부 방법과 합격 여부에도 큰 관심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준비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도학 공부에도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균형 잡힌 학문을 강조했다.

서찰상에서 안도의 학문적 자세를 평하는 퇴계의 논조는 상당히 냉정하다. 그가 제삼자적 입장에서 던지는, 직설적 어조의 충고 속에는 부족한 손자를 감싸안는 온정과 포용 대신 냉철하고 준엄한 가르침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상 퇴계의 충고는 학문적 내용보다는 주로 학문하는 자세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그는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전했다. 이처럼 퇴계는 신랄한 화법을 통해 손자와의 사이에 객관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학업을 독려하는 데 있어 조손 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감정적 매물, 즉 감정적 경계선이 불분명해

---

자식을 특별 대우하지 않음을 알았노라고 감탄한다. 이 내용은 『論語』, 「季氏」篇, 第13章에 나온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陳亢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 對曰, 未也. 嘗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 他日又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禮乎. 對曰, 未也. 不學禮, 無以立, 鯉退而學禮. 聞斯二者, 陳亢退而喜曰, 問一得三, 聞詩, 聞禮, 又聞君子之遠其子也.

지는 것을 경계했다.

다음 예문은 1560년 12월, 20세의 안도에게 보낸 서찰의 일부이다. 손자의 학업에 진보가 없음을 염려하는 조부의 안타까운 심사가 잘 나타나 있다. 안도는 1561년 2월, 청도에서 시행된 소과 1차 시험인 초시에 합격했는데<sup>14)</sup> 아마도 이 서찰이 작성될 당시에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으로 오는 사람을 통해 내가 현사사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빨리 지나가니 더욱 열심히 노력하거라. 요즘은 너는 이렇게 느긋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학업이 진보되지 못함이 전보다 배나 더할까 걱정스런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서울에 사는 김취려는 너도 전에 만나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늘 한 선비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멀리 서울에서 이곳까지 찾아왔는데, 물리치지 못해서 지금 계재에 묵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처럼 뜻을 굳건히 가지고 있는데, 너는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가 너를 몹시 만나고 싶어 하지만, 너는 자주 왕래할 수 없으니, 설에 와서 만나도 늦지 않을 것이다.<sup>15)</sup>

퇴계는 안동 인근의 현사사에 머무르며 글을 읽고 있던 안도에게 좀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학업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간절함이 더해져야 노력이 빛을 발하고 기약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그는 손자가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조용한 사찰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것을 경계했다. 서찰의 내용으로 보아

14) 이황 지음, 정석태 옮김, 『안도에게 보낸다』, 들녘, 2005, 314쪽.

15) 『(先祖遺墨) 家書』 卷6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陶山全書』三, 213쪽, 「與安道孫」, 因來人, 知來寓山寺. 但歲月如流, 千萬勉旃. 汝近日如許悠悠, 恐業之不進, 倍於曩時, 憂心不弛. 京中金就礪, 汝所曾見. 今與一後生, 遠來求學, 無辭可拒. 時寓溪齋. 人能篤志如此, 於汝獨無愧乎. 深欲與汝相見, 然汝不可頻數往來, 歲時來見, 未晚也.



퇴계는 손자에게 유유자적한 면이 있음을 지적한 듯하다. 대체로 젊은 시절에는 세월의 흐름에 둔감한 경우가 많은데, 퇴계는 弱冠의 손자가 시간을 낭비한다는 데 생각이 이르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라도 자극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서울에 사는 김취려가 다른 한 선비와 함께 가르침을 청하고자 방문했음을 손자에게 알렸다. 이러한 언급은 학문하는 자의 굳건한 자세를 칭송한 것이면서 동시에 천 리를 멀다 앓고 나를 찾아와 배움을 갈구하는 자가 있는데 너는 이 할아버지를 지척에 두고도 학업을 태만히 하느냐는 준엄한 질책이기도 했다. 게다가 김취려가 안도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느슨해진 손자의 마음에 긴장감을 주었다. 이처럼 퇴계는 안도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제자들의 상황을 넉넉히 말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주역』을 공부하기 시작한 조목이나 『역학계몽』을 마친 김성일, 우성전에 대한 언급, 이 두 사람의 학문 목표와 자세가 훌륭하다는 칭송, 도산서당에 머물며 『논어』와 『맹자』를 배우는 김명일, 이봉춘, 정사성에 대한 언급 등이 모두 그런 류이다.<sup>16)</sup>

이처럼 퇴계는 맏손자인 안도가 성실한 好學者로 성장하기를 기대했기에 남들과 구별 없이, 오히려 일정한 정서적 거리를 두고 대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했다. 실상 이러한 거리를 유지하는데는 그의 엄격함이 크게 작용했다.

다음 예문은 1564년 9월, 24세의 안도에게 보낸 서찰의 일부이다. 제자 금난수의 서찰을 통해 안도의 불합격 소식을 접한 퇴계의 태연자약한 모습이 담담한 어조 속에 나타나 있다. 그가 안도를 특별히 대우하지 않았음을, 그에게 있어 안도는 여러 제자 중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6) 1561년 11월 5 ~ 29일, 1565년 8월 3일, 11월 하순에 보낸 서찰에 언급된 내용들이다.

금난수가 와서 네 편지를 받아 보고, 네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음을 알게 되니 마음이 놓인다. 네가 대과 시험에 낙방한 것이야 이상할 것이 없지만, 우리 고을의 여러 사람들이 모두 네 큰 외숙부 금응협 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만 것은 어찌된 일이나. 아직 합격자 명단을 보지 못해서 다른 가까운 사람들의 합격 여부는 알지 못하고 있다. 네 큰 외숙부는 경전을 외는 시험을 어떻게 보았느냐. 자꾸만 기다려진다. 네가 서울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면 그대로 하거라. 하지만 경전에 대한 공부가 보잘 것 없으니, 비록 원점을 다 따서 과거에 응시하더라도 고생만 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을까 걱정이다.<sup>17)</sup>

이 서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손자의 낙방을 당연시하는 퇴계의 태도이다. 마치 남의 일을 말하는 듯한 그의 언급에서 안도를 고을의 여느 자제들과 똑같이 대하고자 했음을 읽을 수 있다. 퇴계는 자신의 처남 금응협이 대과에 통과했음을 알고는 그가 경전의 뜻을 풀이하는 강경시를 어떻게 치렀는지 궁금해 했으며, 다른 응시자들의 소식을 알고 싶어 했다. 손자 안도에 대한 위로나 격려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퇴계는 손자에게 경전을 더 충실히 학습할 것을 조언했는데, 이는 시험 준비에 미흡했던 손자에 대한 책망이기도 했다. 사실 퇴계는 경전 공부를 중시했다. 1567년 5월에 보낸 서찰에서도 경전에 대한 공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는 비록 대과의 1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 시험을 위한 詞章만이 아니라 도학을 강조한 이런 모습에서 그가 학문적 균형을 중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陶山全書』四, 294쪽, 「寄安道孫」, 琴聞遠來, 得見汝書, 知無恙, 爲慰. 試之不中, 於汝不爲怪, 獨怪一鄉諸君, 皆推讓於夾之一人, 何耶. 未見榜目, 未知其他親舊得失如何, 夾之講經又何, 企佇企佇. 汝過冬之計既定, 固當遂之, 但經書之功度裂, 雖使滿點得試, 恐徒勞無益耳.

1561년 8월, 21세의 안도가 소과 2차 시험인 회시에 합격하자 퇴계는 서찰상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모습은 드물다. 대체로 퇴계는 안도의 학업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다. 그렇다 보니 안도에 대한 퇴계의 언급에는 조부로서의 따뜻함이 배제되어 있는 등 감정의 절제가 나타난다. 그는 자신이 객관적 입장을 취했을 때 손자에 대한 훈도가 제대로 행해질 수 있다고 여겼던 듯하다.

다음 예문은 1565년 8월, 25세의 안도에게 보낸 서찰의 일부이다. 손자에게 별다른 사정을 두지 않고 대했던 퇴계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대과를 준비하는 손자가 爵祿만을 생각하는 하류 선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다.

지난번에 네 뜻을 살펴보니 오로지 학문에만 마음을 두지는 않았더구나. 나는 네가 아직 정자와 주자의 글을 읽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지난 겨울에 주자의 글을 읽고서도 깨닫고 분발해서 힘껏 유익함을 구하려는 뜻을 볼 수 없었기에 나는 마음속으로 크게 실망하였다. 일전에 또 편지를 보내, 네가 『주역』을 읽으면서도 도서와 꽤 그림의 근원, 그리고 그 깨끗하고 정밀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했지만, 너는 내 편지를 받은 뒤로 이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으니, 모르는 것을 알려는 뜻은 없고, 오로지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벼슬자리를 얻는 데만 마음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뜻을 세움이 이처럼 보잘것없으니, 비록 이제 네게 억지로 이 책을 읽게 하더라도 그것은 노래를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비록 그렇지만 나로서는 이 때문에 너를 끝내 바른길로 인도하지 않을 수 없기에 종과 말을 보내는 것이니, 너만 유독 분발해서 고치려고 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sup>18)</sup>

18) 『陶山全書』三, 214~215쪽, 「與安道孫」, 但向來觀汝之志, 專不在學問. 吾意恐汝未讀程朱書故如此. 及去冬讀晦菴書, 猶未見有感發興起憤求益之意, 吾心大失所望. 頃者又與書言, 汝讀易而不知圖書卦畫之原, 潔靜精微之義, 爲可恨云云. 汝得書後無一語報答,

퇴계는 주자의 글을 읽은 안도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리라 기대했는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자 실망했다. 게다가 그가 『주역』을 읽으면서도 그 정밀한 이치를 탐구하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자 호된 질책을 이어갔다. 퇴계는 손자에 대해 벼슬만을 구하는 자라고 꾸짖었는데 퇴계가 도학자임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강도의 책망이다. 그는 이 서찰의 별지에서 학문적 열정이 없다면 모든 경전을 다 외우더라도 결국 쓸모없는 것이 된다고 언급함으로써 손자가 헛공부를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퇴계는 『주역』을 중시했다. 그는 같은 해 6월에 보낸 서찰에서도 『주역』을 공부할 때는 그 근원이 되는 河圖, 洛書와 卦의 이치에 대해 알고자 노력해야지, 강론하는 자리에서 대답할 거리만 얻을 요량으로, 走馬看山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퇴계는 안도의 학문적 방향을 바로잡아 주고자 제자 중에서도 연배가 비슷하고 학문적 자세가 정확한 김성일, 우성전 등에게 도움받을 것을 권했다.

퇴계는 배움에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말만 그럴 듯하게 할 줄 아는 하찮은 선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이를 잊고, 친구에게라도 머리 숙여 배울 것을 명했던 것이다. 손자 안도의 입장과 자존심을 염두에 두지 않는 냉정한 목소리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퇴계는 조손 간의 정에 구애됨 없이, 안도와의 사이에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시의적절한 가르침을 내릴 수 있었다.

다음 예문은 1569년 9월, 29세의 안도에게 보낸 서찰의 일부이다. 축하를 뒤로한 채 합격한 손자의 답안에 대해 好惡을 일일이 평하고, 공

---

則其無意求知所未知者，可知一向馳心於外慕得失之際。立志凡近如此，今雖強汝以讀此書，何異於使不樂者強歌耶。雖然在吾則不可緣此而終不導汝可知之路，故爲遣奴馬，汝獨不能奮發而思改乎。

부하는 자세를 제대로 가질 것을 당부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평소 퇴계가 안도를 대하는 방식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네 매부가 내려오는 편에 가지고 온 네 편지를 받아보고 그간의 소식을 다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달 8일에 명복이가 와서 또 네 편지와 서울에서 실시된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받아 보고, 비로소 너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합격하였음을 알게 되니 너무너무 기쁘다. 다만 김부륵이 낙방하였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러나 특별 과거 시험이 곧 있을 것이니, 우연히 한 번 낙방했다고 해서 안타까워하고만 있어서야 되겠느냐. 네가 과거 시험에 응시했을 때 제출했던 논문·과부·책문은 모두 다 살펴보았다. 논문과 책문은 합당한 점수를 받았지만, 과부는 이보다 못한 점수를 받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특별 과거 시험이 임박하였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너는 늘 글을 읽을 때 자세히 뜯어보고 깊이 음미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갑자기 시험 문제를 접하게 되면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듯 당황하게 되는 것이니, 뭐 그리 이상할 것이 있겠느냐.<sup>19)</sup>

퇴계는 손자의 답안 가운데 論文과 策文의 점수는 정확히 평가받았지만 科賦는 오히려 점수를 과하게 받았음을 지적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과부의 점수가 현재보다 낮게 나왔다면 불합격했으리라는 말이 된다. 실로 퇴계의 논평은 손자의 기분을 북돋워 주기보다는 기운 빠지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손자의 마음이 우쭐해지거나 반대로 실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훈육했다.

19) 『(先祖遺墨) 家書』 卷9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陶山全書』四, 305~306쪽, 「與安道孫」, 朴郎下來見書, 知悉. 初八日命福來到, 又得書及榜目, 始知汝及諸人得中者多, 深喜深喜. 但惇敘失志, 恨不可勝. 然別舉在前, 偶然一蹶, 何足恨也. 論·賦·策皆已見之. 論·策合等, 賦則似不止此等耳. 別舉且臨, 不知又何如也. 汝尋常讀書, 專不用意加細密精熟之功, 猝然當此, 如行霧中, 何怪之有.

퇴계는 성균관에서 수학하던 안도에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학문을 할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서 시험 보는 과목인 논문과 책문을 익히는 데 있어서도 자기 힘으로 부지런히 지어야지, 남의 손을 빌려서 대충 과제를 제출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기도 했고, 책을 볼 때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읽어야지 갑자기 다 외우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역량을 생각지 못한 무모한 처사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위의 서찰에서도 밝혔듯이 안도가 시험 문제를 접하게 되면 마치 안개 속을 헤매듯 당황한 것은 다름 아닌 이러한 그의 공부 방식 때문이었다. 퇴계는 손자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드러내는 데 힘썼으며, 이를 통해 선생과 학생, 학자 대 학자로서의 객관적 거리와 긴장감을 유지했다.

#### IV. 全知的 판단과 理性的 환기

퇴계 선생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그를 세상사에 어두운 서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손자에게 부친 서찰만 읽어보더라도 그에게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자신만의 뚜렷한 안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이 처신한 일에 대해 서술하거나 손자의 처신에 대해 조언하는 퇴계의 모습은 전지적이기까지 하다. 모든 이치를 파악한 듯 확신에 찬 그의 어조에서 학문적으로 숭앙 받는 위대한 哲人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서찰에서도 나타났듯이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손자를 염려하는 퇴계의 모습은 여느 할아버지와 다르지 않다. 그는 사회에서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를 알았기에 행여 손자

가 받을 헛디디지 않도록 부부간의 도리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부터 차근 차근 조언해 나갔다. 퇴계의 자상하고 세심한 어조에는 인생의 세과를 먼저 거친 선배가 갖게 되는 조심스러움과 신중함이 묻어나 있다.

퇴계는 혈기 왕성한 젊은이일수록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처신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옳다고 생각해서 당연시한 행동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전지적 판단에 입각한 그의 충고와 조언, 그리고 자신의 처신에 대한 서술은 時俗에 물들지 않은 젊은 손자에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처세하기를 촉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퇴계는 장차 안도가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세상에 홀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여겼기에 그의 처신과 처세에 마음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인생의 연륜이 배어 있는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손자가 기분에 좌우되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경계했던 것이다.

다음 예문은 1561년 10월, 21세의 안도에게 보낸 서찰의 일부이다. 당시 안도는 소과 2차 시험인 회시에 합격한 후 경북 상주에서 열릴 축하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퇴계는 그 자리에서 손자가 들뜬 마음에 지나친 행동을 할 것을 우려해서 이 서찰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네가 이번에 상주에 가서는 물론이고, 그곳에서 함께 합격한 사람들과의 연회에서도 십분 조심해서, 너무 기뻐한 나머지 분별없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삼가거라. 선배들이 시키는 장난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도 잠시 하는 시늉만 해서 책망만 면할 뿐이지, 광대들이 하는 것처럼 극도로 난잡하고 더러운 짓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웃음거리나 제공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가 평소에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안심은 된다만, 내가 보기

에 후생들이 아주 작은 이름을 얻게 되면, 스스로 일생의 큰일을 해냈다고 생각하고 흔히 제정신을 잃어버린 채 미친 듯 취한 듯이 행동을 하니, 너무도 딱하고 가소롭다. 거듭 경계하거라. 하물며 너는 어른을 모시고 참석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sup>20)</sup>

청년기에는 작은 성취에도 우쭐해져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타인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퇴계는 약관의 나이에 합격의 기쁨을 맛본 손자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었기에 혹시나 혈기방장한 행동으로 어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까 염려한 것이다.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회시를 이제 막 통과한 젊은이가 마치 천하를 다 차지한 듯 날뛰는 모습은 남의 조소를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이해 8월,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퇴계는 손자에게 보낸 서찰에서 요행으로 합격했음을 안다는 겸사의 말을 잊지 않았으며, 매사 남의 비웃음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위의 예문으로 보건대 당시 축하연에서는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의 긴장을 풀어주고자 선배들의 짓궂은 장난이 의례처럼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퇴계는 이에 대해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척 적당히 흥내만 내야지, 분위기에 휩싸여 무절제하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단단히 주의시켰다. 인간사에서 過猶不及이란 어떤 경우에라도 적용되는 격언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실상 안도에게는 이런 축하의 자리가 익숙지 않았던 만큼 모든 상황을 환히 파악한 조부의 경계는 합격의 기쁨에

20) 『(先祖遺墨) 家書』 卷6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陶山全書』三, 213쪽, 「安道孫, 就中汝於今行及凡赴同年筵席, 十分操持, 愼勿乘喜多作狂妄事. 凡先生所令戲事, 雖不可不從, 聊適爲之, 僅以免責而已, 不可極爲淫媠鄙慢之態, 以供人笑樂, 如倡優輩所爲也. 汝當時不善飲酒, 此則可喜, 然吾見後生輩得小小名字, 自以爲平生一大事, 多失常性, 如狂如醉, 甚可憫笑. 千萬戒之. 況汝侍尊長以行, 尤非他比耶.



취해 있던 그의 이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했다.

다음 예문은 1569년 10월, 29세의 안도에게 보낸 서찰의 일부이다. 당시 안도는 현재 서울시 마포구 서강에서 있었던 집에 참여한 후, 7월부터 서울 죽전동에 위치한 장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sup>21)</sup> 퇴계는 제자 권호문과 참의 김난상이 손자 안도에 대해, 爲人이 너무 좋기만 하고, 사리 분별을 할 줄 모른다고 했다는 소문을 접한 후 이 서찰을 쓴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떤 이들은 속으로는 비난하고 멸시하면서도 겉으로는 치켜세우는 척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마주하고 있을 때는 진심을 다하는 척하다가도 뒤돌아서면 손가락질하고 비웃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공공연히 헐뜯고 비방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드러내놓고 배척하기도 한다. 너는 다만 나를 받들고 보위하려는 마음에 위에서 든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 앞의 두 유형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고, 마주하고 있을 때와 뒤돌아섰을 때의 태도가 다른 것을 알지 못한 채 대한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우롱을 당할 것이다. 이 때문에 네가 사람이 너무 좋기만 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든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 뒤의 두 유형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혹 말이나 얼 굴빛에서 편치 않은 모습을 드러낸 채 대한다면, 반드시 그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지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네가 사리 분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겠느냐.<sup>22)</sup>

이 글에서 퇴계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상대의 진의를 아는 것이

21) 이황 지음, 정석태 옮김, 『안도에게 보낸다』, 들녘, 2005, 317쪽.

22) 『(先祖遺墨) 家書』 卷9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陶山全書』四, 306~307쪽, 「寄安道孫」, 吾意料之, 今者世人之於我, 或內實非蔑而外若推重, 或當面輸心而背則指笑, 或公肆詆訛, 或顯加排擯. 汝徒有主我衛我之心, 於前二者, 或不知其內外面背之異而應之, 則必爲其所愚弄. 此所謂見周也. 於後二者, 或不平其言語氣色而應之, 則必益其所忿怒. 所謂妄人者, 無乃由此等而云耶.

중요함을 말했다. 면전에서 민망스러울 정도로 추켜세웠다가 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듯 깎아내리는 세태를 깨닫지 못한 채 곧이곧대로 반응한다면 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도 안도는 상대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냄으로써 종종 충동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퇴계의 전언은 이런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처세와 관련하여 이렇게 길게 언급한 것은 이날의 서찰이 유일한데, 사리 분별을 못한다는 김난상의 평에 퇴계가 많은 생각을 한 듯하다.

공자와의 만남에서 안연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고 남의 의견에 수긍하기만 하는 태도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爲人이 좋기만 하다는 권호문의 평은 안도에게 이런 두루뭉술한 면모가 있음을 지적한 것일 수도 있고, 너무 진실되게만 처신하다가 오히려 상대와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음을 예들려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예문에서는 생략되었으나 퇴계는 안도에게 앞으로는 조부를 칭송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듣더라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일절 반응하지 말라는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칭송과 비방이란 주로 사람의 好惡에 관계된 사안이었기에 여기에 一喜一憂하는 것은 상대의 감정에 물드는 일임을 퇴계는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젊은 손자가 논쟁에 말려들기보다는 아예 함구함으로써 이성적으로 처신하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조처한 것이다.

다음 예문은 1570년, 퇴계가 서거하던 해 정월에 30세의 안도에게 보낸 서찰의 전문이다. 이때 안도는 대과 2차 시험인 회시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성균관 앞에 셋방을 얻어 공부하던 중이었다.<sup>23)</sup> 당시 안도에

23) 이황 지음, 정석태 옮김, 『안도에게 보낸다』, 들녘, 2005, 271쪽.

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퇴계가 그에게 말하고자 한 핵심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어른들과 언쟁을 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너는 어른들 앞에서는 나서지 말고 차분히 마음을 비운 채 서로 차이가 있는 여러 의견들을 찬찬히 듣고 자세히 살펴서 그중 나은 것을 따라 좋은 점을 취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먼저 자신의 거칠고 영성한 식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만을 편벽되어 주장하느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큰소리로 마구 떠들어 어른들의 말을 누르고야 말았으니, 설사 네 말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네 생각만을 큰 소리로 마구 떠들어 대는 무례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이것은 배우는 사람이 자신에게 보탬이 되는 것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다. 하물며 제멋대로 보고 잘못 들었는데도 이와 같이 한다면 되겠느냐. 속히 고치도록 하거라.<sup>24)</sup>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타인의 견해를 찬찬히 듣는 일은 인내심을 요한다. 그렇다 보니 혈기가 앞서서 젊은이의 경우 상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단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다른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이 서찰에 나타난 상황을 보면 안도 역시 윗사람의 의견을 폄하한 채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우를 범했음을 알 수 있다.

세상사란 보는 관점에 따라, 또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시비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퇴계는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비를

24) 『(先祖遺墨) 家書』 卷9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陶山全書』三, 217-218쪽, 「與安道孫」, 汝於諸丈前, 當虛心下氣, 參聽衆論之不一, 徐究而細察之, 以庶幾從其長而得其益, 可也. 今乃先以粗疎之見, 偏主己意, 信口騰說, 高聲大叫, 以陵駕諸丈說, 假使汝說不違理, 已是咆哮無禮, 非學者求益之道, 況妄見誤入而如此, 其可乎. 其速改之.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기 견해를 품위 있게 표명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체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초학자일수록 어른에 대한 예의를 잃고 자신의 감정에 도취된 채 떠들어 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而立의 나이에 들어선 안도로서는 논쟁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 이러한 무례가 손실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안도의 식견을 넘어선 퇴계의 질책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의 이성적 처신을 이끌어 내는 촉매제가 되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세 통의 서찰이 안도의 처신에 관한 것이었다면 다음에 제시될 두 통의 서찰에서는 퇴계의 처신을 보여준다. 아래 예문은 1565년 7월, 25세의 안도에게 보낸 서찰의 일부로서 승려 보우의 탄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몹시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안의 선비들에게 함께 모여서 의논하게 하였고, 또 그들을 힘껏 타일러서 중지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김부필과 조목 등은 내가 중지시킨 것이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가슴속에 울분을 품고 있으나, 일단 억지로 참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늙고 보잘것없지만 어찌 생각 없이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불의에 분개하는 충성심을 저지시켰겠느냐. 이러한 일은 의리에 입각해서 판단해야지 추호라도 객기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의당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어렵다.<sup>25)</sup>

명종 재위기에 보우는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불교 증흥에 힘썼고, 유

25) 『陶山全書』三, 214쪽, 「答安道孫」, 然而余意有甚不可者, 故既勸令會議, 而又力諭止之. 其中如彥遇士敬輩, 殊不以止之爲當, 中懷憤鬱, 而姑且強止云. 然余之老孱, 亦豈無所見, 而妄沮人忠憤之發耶. 此等事, 當以義理斷之, 一毫客氣著不得處. 後日當知之. 今難以片言盡也.

생들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 1565년 문정왕후 사후 유생들은 보우의 처벌을 상소했는데 그 결과 보우는 그해를 넘기지 못하고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처형되었다. 위에 제시된 퇴계의 서찰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유생들의 상소가 빗발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계는 예안의 선비들에게 상소를 올리지 말 것을 명했다. 문정왕후의 상을 마친 터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선비들이 보우의 처벌을 주장할 때 퇴계는 동참을 거부했던 것이다. 그 결과 김부필과 조목 등은 스승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분개하며 울분을 삭여야 했다.

이에 대해 퇴계는 그 사유를 낱낱이 해명하는 대신 자신의 처신은 객기가 아닌 의리에 입각한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로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두 달 후인 9월에 보낸 서찰에서도 상소를 중지시킨 일에 대한 시비와 득실은 후세의 공론이 있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추측하건대 퇴계는 보우의 처벌을 외치는 유생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는 생각했으나 감정이 개입되는 등 방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겼던 듯하다. 그는 증론에 휩쓸리는 대신 자신만의 해안으로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손자를 비롯한 젊은 제자들이 보다 이성적인 대처를 하게끔 유도했다.

다음 예문은 1568년 4월, 28세의 안도에게 보낸 서찰의 일부이다. 학덕이 뛰어난 몇몇 선생의 위패를 문묘에 봉안하자는 성균관 유생들의 주장에 대해 퇴계가 자신의 생각을 밝힌 부분이다.

성균관 유생들이 도덕과 학문이 뛰어난 한훤당 김굉필·일두 정여창·정암 조광조·회재 이언적 등 네 선생의 위패를 문묘에 모실 것을 청했더구나. 이러한 일을 어찌 이처럼 가볍게 청하는 것이냐. 기묘사화에 희생되었던 사림들이 정치를 할 때도 성균관 유생들이 한훤당 김굉필 선생의 위패를 문

묘에 모실 것을 청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막으며 임금님께 올린 글에서 이르기를, “문묘에 모시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양시와 사양좌와 같이 뛰어난 분들도 이에 해당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어찌 이러한 청을 가볍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께서 가묘에 제사를 내리면 될 것입니다.”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매우 합당하다. 다만 임금님께서 가묘에 제사를 내리면 된다고 한 것만은 온당치 못한 것 같다. 아무쪼록 이러한 뜻으로 우성전을 잘 타일러서 나라의 중대한 전례가 가볍게 거론되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sup>26)</sup>

성균관 문묘는 공자를 제사 지내는 사당으로 현재 이곳에서는 공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와 중국 역대 先賢巨儒의 위패를 배향하고 있다. 서찰을 보면 당시 성균관 유생들이 한훤당 김굉필, 일두 정여창, 정암 조광조, 회재 이언적 등 4인의 위패를 문묘에 모시자고 청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묘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가볍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기에 퇴계는 우선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수십 년 전 조광조가 도학 정치를 실현하고자 할 때도 성균관 유생들의 유사한 상소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예로 들며, 국가의 중요한 典禮가 젊은 선비들의 요청에 따라 쉽게 논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문제 역시 그 속내를 보면 유생들이 언급한 4인은 학덕을 갖춘 훌륭한 분임이 분명하지만 퇴계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방법 내지 절차상의 문제였다. 설령 뜻깊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일의 가치가 퇴색된다는 점을 그는 알았던 것이다. 같은 달 하순, 안도에게

26) 『(先祖遺墨) 家書』 卷8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陶山全書』四, 300쪽, 「答安道孫」, 泮中請四先生文廟從祀. 此事何可如此輕易乎. 吾見己卯人時館學請寒直從祀文廟. 其議防啓之辭有曰, 從祀至重, 雖以楊龜山謝上祭, 猶不得參. 今豈易言此請. 只於家廟賜祭云云. (不記其辭, 大意如此.) 此言殊有理. 但家廟賜祭, 亦似未穩耳. 須以此勸景善, 勿爲率然舉大典也, 至可至可.

보낸 서찰에서도 퇴계는 네 분 선생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는 것은 괜찮지만 문묘에 종사하는 일은 경솔히 결정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고수했다. 이를 통해 보건대 퇴계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선동성을 띤 주장을 경계했으며, 사안에 대한 이성적 접근을 중시한 인물이었다.

## V. 맺음말

다양한 통신 매체의 등장으로 편지 쓰기는 이제 낯선 일이 되었다. 물론 전자우편인 이메일의 사용이 일상화되었지만 이메일과 편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함을 누구나 알고 있다. 사람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쓴 편지에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그 무언가가 담겨 있는 법이다. 본고에서는 위대한 유학자로 숭앙받는 퇴계 이황의 가서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천 통의 가서 중에서도 말손자 안도에게 보낸 현전 가서 125통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학자로서의 퇴계는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 우리나라 유학의巨星이요, 서거한 지 50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巨儒다. 이처럼 넘보기 힘든 학문적 권위만을 생각한다면 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퇴계의 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의 내밀한 생각과 일상사가 기록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장르적 성격상 사적인 기록의 비중이 높은 서찰은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퇴계의 가서에서는 전하는 내용에 따라 진술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이것을 말이나 글을 펼쳐가는 방법 즉, 화법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서찰에 나타난 퇴계의 화법은 일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

른 형태로 표출되었기에 그가 처한 상황과 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내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안이 제수된 관직의 사직, 손자의 학업에 대한 면려, 처세나 처신에 관한 언급임에 주목하여 이 세 가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제2장에서 살펴본 ‘자탄에 내포된 관철의 의지’는 조정에서 제수한 관직을 사직할 때 나타나는 퇴계의 화법상 특징이다. 벼슬에서 물러나고자 했으나 자신의 진정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한 퇴계는 용납되지 못한 자의 비애와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탄식을 통해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깊은 우울감과 자기 연민이 동반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손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납득시키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지지와 동조를 구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자탄 속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신랄한 어조와 객관적 거리’는 손자의 학업을 독려할 때 나타나는 화법상의 특징이다. 그는 여느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손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지만 절제할 줄 알았다. 퇴계가 손자를 향해 쏟아낸 신랄한 지적들은 조손 관계가 초래할 감정적 매몰에 대한 경계라 할 수 있다. 그는 두 사람 간에 존재하는 감정적 경계선이 불분명해진다면 손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행해질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손자임을 이유로 감싸안기보다는 냉정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일종의 심리적, 정서적 거리라 할 수 있는 객관적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했던 것이다.

제4장에서 살펴본 ‘전지적 판단과 이성적 환기’는 손자의 처신에 대해 충고하거나 자신의 처신에 대해 서술할 때 나타나는 화법상의 특징이다.



퇴계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듯한 전지적인 자세로 손자에게 조언했다.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지만 증손자의 유모를 구하는 일이나 부친의 묘비를 세우는 일 등에서 젊은 안도로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하는 퇴계의 전지적 양상이 잘 드러난다. 그는 평생의 경험에 바탕을 둔 이러한 판단을 통해 사회적으로 미숙한 손자가 이성적으로 처신할 수 있게끔 이끌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퇴계의 성품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철저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함과 별개로 손자에게 만큼은 마음속에 궁리한 이야기기도 곧잘 하는 등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가서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해 퇴계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부분일 것이다. 맏손자였던 안도는 분명 조부로부터 받은 서찰의 수량, 그 이상의 사랑을 받았다. 퇴계는 자신과 아들 준을 대신해서 안도가 집안을 이끌어 나가리라 믿었다. 하지만 퇴계의 기대와는 달리 안도는 그의 동생 순도와 함께 퇴계 서거 불과 14년 뒤 집상 중에 운명하고 말았다. 본고에서 살펴본 퇴계의 가서는 조손 관계가 상실되어 가는 오늘날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큰,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 【참고문헌】

### 1. 원전 자료

『論語』

李滉, 『(先祖遺墨) 家書』(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_\_\_\_, 『陶山全書』(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_\_\_\_, 『退溪集』 I·II·III(『한국문집총간』 29-31집), 민족문화추진회 편, 1989.

\_\_\_\_, 權五鳳 主編, 『退溪書集成』(1-5), 포항공과대학교, 1996.

\_\_\_\_, 이장우·전일주 해제·번역, 『(先祖遺墨) 家書』, 한국국학진흥원, 2011.

## 2. 연구 논저

김미영, 「祖孫 관계의 전통과 隔代 교육」, 『실천민속학연구』 제16호, 실천민속학회, 2010, 55~84쪽.

\_\_\_\_, 「사람됨을 가르친 퇴계의 자녀교육」, 『퇴계학논집』 제11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123~152쪽.

김종석, 「家書를 통해 본 퇴계선생의 자녀교육관」, 『퇴계학논집』 제1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07, 235~262쪽.

박수경, 「퇴계의 가서에 나타난 가정교육의 범주와 지향」,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12.

이인철, 「退溪의 子女教育論 - 寄安道孫을 中心으로 -」, 『교육철학』 제33집, 한국교육철학회, 2007, 167~203쪽.

이장우, 「家書를 통해 본 退溪의 家族관계 및 人間的인 면모」, 『퇴계학논집』 제11호, 영남 퇴계학연구원, 2012, 57~90쪽.

이황 지음, 정석태 옮김, 『안도에게 보낸다』, 들녘, 2005.

정석태 編著,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1-4)』, 퇴계학연구원, 2001-2006.

Abstract

## A Study on Narration Shown at the Letter of Toegye

- Focusing on the Letter Sent to Ando Lee, His Grandchild -

Jeong, Si-Youl

This study is on the narration shown at 125 existing letters among the letters Toegye Lee Hwang sent to Ando, his grandson. Affective tones of voices were found here and there at the letter as they were for the oldest grandchild and showed no big difference through about 10 years, but there were difference in the type of statement depending on contents to be delivered.

This study examined 3 relatively big issues such as resignation of public office granted, diligence on the works of grandchild and mention about proper behavior and life among other contents at the letters to be analyzed in terms of narration. His narration at the letter can be summarized as the expressive honesty based on the respect for the others. His narration shows certain aspect of change for more effective message depending on 3 concrete issues mentioned earlier, and this study examined details focusing on this.

Chapter 2 confirmed that his will to achieve his intention was involved in the sigh of Toegye. While he continuously complained to himself for his position outwardly, he showed his tenacity to achieve his intention even by meeting the king in person if it would be difficult to get approval with written appeal in the context.

Chapter 3 examined the sharp tone of Toegye and objective distance formed with his grandchild due to this. He exercised caution against emotional immersion that his relation to his grandchild might cause in the course of encouraging his works by keeping certain distance against his grandchild through sharp tone.

Chapter 4 examined his omniscient(knowing everything) judgment and rational attention to this. Toegye advised his grandchild based on omniscient judgment, and urged his young grandchild to make the best of life by showing his philosophy of living.

**Key Word**

Toegye, Lee Hwang, Ando, grandchildren, grandson, letter, narration

- 논문투고일 : 2013.7.17. 심사완료일 : 2013.7.30. 게재결정일 : 2013.7.30.